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전북자치도·새만금청·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30여년간 도전·성과 집대성... 백서 발간 기념식 개최
기관별 추진상황 등 미래 비전·협력 강화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략을 소개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질관리 대책'을 통해 수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관리 방안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계획 및 공급방향'에서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조화를 이룬 도시 조성 방향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스마트 수변도시, 수질관리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공항·항만·철도 등 서해권 물류거점을 위한 새만금 SOC 트라이포트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무대"라고 강조하면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인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 프로젝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전략산업 거점"이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새만금을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국제도시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과 함께 병행한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유관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새만금 신항 국가재정 전환 예산 확정 절실”

민주 이원택 의원, “내년 2선석 우선개항 앞두고 있으나

배후부지 재정전환 확정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항 우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5일 새만금신항이 오는 2026년 2선석 우선개항을 앞두고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예산확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2026년 2선석 우선개항 1년여를 앞두고 있지만 배후부지 재정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이원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이 내년 2선석 우선개항을 앞두고 배후부지 국가재



정 전환에 대한 예산확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 계획돼 지역 차별과 형평성에 맞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6년 우선개항 시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며 “배후부지 재정전환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부지를 확장하여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배후부지 확장을 위해 해수부와 환경부, 기재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새만금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만 유류 재정투자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전북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표상이 아니냐”며 “전북 삼중소의 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청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새만금 배후부지 1·2단계의 재정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재정전환에 대한 예산확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권희성 기자

도, AI·홀로그램 기업 중동 진출 글로벌 교두보 마련

NIPA 아랍에미리트 IT지원센터와 협력의향서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ICT 산업 전시회 'GITEX Global 2025'에서 UAE IT지원센터와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UAE IT지원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두바이 현지에 운영 중인 ICT 기업 지원 거점으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사무공간, 시장 컨설팅, 네트워킹, 테스트베드 연계 등 실질적 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이다.

협력 의향서에는 △현지 사무공간 제공 △중동시장 진출 컨설팅 △수출 마케팅 지원 △투자자·바이어 네트워킹 연계 △현지 테스트베드·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검증·현지화 지원 등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체결식에는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 첨단산업국장과 윤준배 UAE IT지원센터장, 최대규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



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AI·홀로그램 기업의 중동시장에 진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력 의향서와 함께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GITEX Global 2025'에도 참가해 AI·홀로그램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GITEX Global 2025'는 170개국 6,500

여 개 기업, 17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동·아프리카 최대 ICT 박람회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동판 CES'로 불린다.

특히 홀로그램, 마이크로엑스알, 혼아티스 등 총 11개사가 참여한 'K-홀로그램 공동관'에서는 양방향 풀컬러 HOE 스크린, 홀로그램 현미경 등 첨단기술 데모 시연을 진행해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공동관에서는 (주)에코팜과 (주)다운정보기술이 참여해 딥러닝 기반 딸기 병해 진단 솔루션과 인공지능 활용 노지 스마트팜 관수서비스 시스템을 선보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퍼지컬 AI 핵심 기술 실증사업(정부 예산 면제), 홀로테크 허브 구축, 새만금 RE100 기반 글로벌 전지산업 단지 조성 전략 등을 연계해, AI·홀로그램-에너지-신소재 융합형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만호 기자

‘2025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고창 내화수림대

상수리나무 심어 경제성·생태적 가치 조화 이뤄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에서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내화수림대가 우수조림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는 산림청이 2019년부터 조림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사업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조림지 선정의 타당성

△수종의 적정성 △사후관리 △생육 상태 등으로, 고창 내화수림대는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지역은 과거 침엽수림 하단부에 전답과 묘지가 인접해 영농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전북도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2022년 상수리나무 1만 3,000 그루를 식심어 4.53ha 규모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했다.

상수리나무는 불에 강할 뿐 아니라 목재와 도토리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경제성과 생태적 가치를 모두 갖춘 대표 수종이다. 해당 조림지는 2년생 용기묘를 식재해 활착률이 높고, 하층식생도 안정돼 토양유실 방지와 경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특히 매년 풀베기·덤불제거·어린이 나무 가르기 등 사후관리를 수행해 활착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한 줄 소식

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17일 공개

축! 전주매일 창간

이제
2025 임실방문의해
Visit Imsil year

임실N치즈축제

옥정호 봉어섬 출렁다리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아쿠아페스티벌

